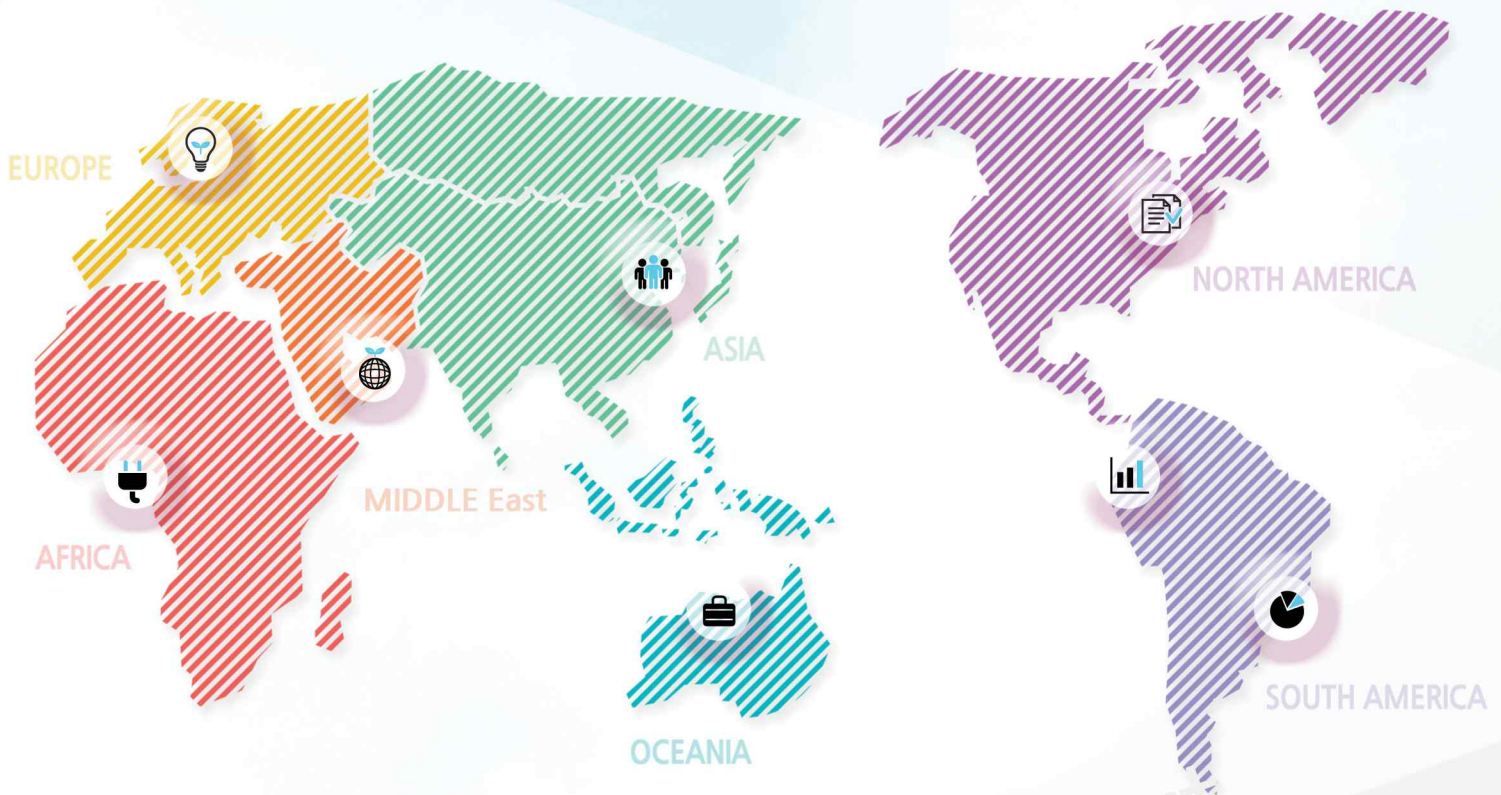




Blue Ocean 쿠바 시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목 차

요 약

I. 쿠바 경제모델 개혁 현황 / 1

II. 쿠바와의 교역 환경 / 4

1. 쿠바의 교역 현황
2. 미국의 對쿠바 경제제재
3. 미국의 對쿠바 제재완화

III. 쿠바 투자 환경 / 16

1. 개관
2. 신 외국인 투자법 주요내용
3. 마리엘 경제특구
4.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 산업

IV. 주요국 對쿠바 정책 / 31

1. 미국
2. EU
3. 중국
4. 일본
5. 기타 국가

V. 우리 기업 쿠바시장 접근 전략 / 40

1. 성장가능성이 높은 쿠바 시장
2.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변화 전망
3. 우리기업의 쿠바 접근 전략
4.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서의 쿠바

요 약

- 쿠바는 2011년 라울 카스트로가 제 1 서기직 취임 이후, 쿠바의 경제 모델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개혁안'을 발표하고 자영업 허가를 통한 민간 경제 육성, 중고자동차 및 주택 매매를 통한 자본주의식 소유권 도입을 위해 노력 중
-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쿠바 정부는 매년 7% 이상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 쿠바 경제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코자 2014년 3월 신외국인 투자법을 발표
- 신외국인 투자법에서는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보장, 조세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며 마리엘 발전특구에 투자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짐. 거의 모든 분야의 투자가 가능(보건, 교육, 군사 제외)하나 쿠바 정부에서는 농림업, 제조업, 관광업, 에너지·광업, 제약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희망
- 미국은 지난 50여 년간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2차례의 경제제재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고, EU, 중국, 기타 중남미 국가들은 쿠바의 변화에 대응하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 중
- 쿠바 시장이 현재 변화기에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쿠바 정부의 우선 육성 분야(의료·바이오 산업, 건설플랜트 산업, 에너지, 관광 등)를 고려하여 국영기업과의 내수시장 공동진출, 유력 중개상과의 협력 개발, 아바나 국제박람회 및 마리엘 특구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장기적인 진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
- 또한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對쿠바 정책변화와 분위기를 파악하여 미국 진출 기업 및 미국 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활용한 쿠바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

I. 쿠바 경제모델 개혁 현황

□ 라울 카스트로 체제 출범

- 피델 카스트로는 2008년 2월 집권 49년 만에 국가원수직에서 사임,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및 각료회의 의장직 취임
 - 라울 카스트로의 취임은 쿠바 공산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권력 이양
 - 지난 49년간 2인자 역할(국방장관, 국가평의회 및 각료회의 수석부의장, 공산당 제2서기)을 수행해 왔고, 2년간 지도자 수업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쿠바 체제의 안정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
- 2009년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주요 장관 및 공기업 사장 등의 요직을 군부 중심으로 기용
 - CIMEX社(최대 유통 공기업) Hector Oroza Busutil 사장 취임
 - SASA社(자동차 정비 공기업) Jose Rodriguez Pinon 사장 취임
 - 피델 카스트로의 심복이자 차세대 유망 정치인 카를로스 라헤(경제총괄 부통령), 펠리페 로께(외교부 장관)를 축출
- 2011년 4월, 14년만의 공산당 전당대회에서(6차), 피델 카스트로가 당 제 1서기직에서 사퇴하고 라울 카스트로가 제 1서기직 취임, 명실상부한 실권자로 부상
 - 라울 카스트로는 취임 직후 “인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기본욕구 충족을 우선시 하겠다”고 발표하고 경제침체, 주택부족, 식량위기, 관료의 무사안일 등 쿠바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개혁조치 발표

□ 2011년 쿠바 경제모델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개혁안 발표

- 쿠바 경제는 정부주도적인 모델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모든 운영이 이루어지며 정치적 리더쉽에 크게 좌우됨.
- 쿠바 경제는 니켈 및 설탕 수출,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니켈 가격 하락 및 사탕수수 재배 농장 폐쇄, 관광산업 성장 둔화 등으로 실업률 급증, 물가 상승, 외화 부족의 문제를 겪게 되며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하게 됨.
 - 미국의 對쿠바 경제 제재로 인한 교역의 어려움이 쿠바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 쿠바 공산당은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경제사회개혁안(Economic Policy Guideline, Lineamiento)”를 의결, 향후 5년 간 개혁을 추진할 것을 발표
 - 동 개혁안은 총 313개의 안전을 통해 55개의 목표를 달성코자 하며 그 방향은 크게 5분야로 정의할 수 있음.
 - ① 경제사회발전모델 제시 ② 정부조직 개편 및 역할 개선
 - ③ 쿠바 국민의 삶 개선 ④ 산업분야별 발전 ⑤ 기타
- 동 개혁안의 가장 큰 목표는 과거 정부가 국민의 경제활동을 책임지던 것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임
 - 쿠바는 식량배급,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을 제공하였으나 세수부족, 외화 부족 등으로 인해 정부의 부담이 커지자 점차 정부의 역할을 축소 하고 자영업 육성을 통해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는 인구를 흡수

□ 경제사회개혁안 추진 성과

- 식량배급제 및 정부보조금의 점진적 축소(2011년)
 - 직장 내 배식 폐지 및 축소, 담배보조금 폐지 등

- **자영업자 육성을 통한 민간 경제부분 생성(2011년)**
 - 운수업(택시, 렌트카 등), 주택임대업, 개인 식당, 이발소, 수리공, 청소업 등
 - * 관광과 직결되어 외화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중점
 - 쿠바 자영업자는 2008년 15만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7월 50만 4,613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쿠바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 효과
 - * 신규 자영업자의 60%가 기존 실업자였으며 영업자별 세금 납부 의무 발생
- **중고자동차 및 주택 매매허용(2011년)**
 - 1959년 혁명 이후 금지되었던 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쿠바식의 소유권 제도를 폐지하고 자본주의식 소유권을 도입
 - 쿠바 국민의 8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 전망
 - 중장기 적으로 쿠바 정부의 세수 확대 및 부정부패 축소에 기여
 - * 연간 5천대의 승용차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한국산 시장점유율 약 40%)하며 연간 25억 불에 달하는 해외 친인척 송금의 상당부분이 차량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2011년)**
 - 라울 카스트로의 실권 장악 후, 국가평의회 내의 감찰기구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며 횡령, 뇌물 수수 등에 대한 강력한 감사 시행
 - 2011년 쿠바 내 외국인 회사 3개사 폐쇄
- **쿠바 내국인 여행비자 철폐(2013년 1월)**
 - '13.1.14을 기준으로 쿠바국민이 출국 시 필요했던 출국비자를 폐지
 - *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쿠바인은 150 쿠바 페소를 지불하고 정부의 승인 허가 필요 (쿠바인의 한 달 월급은 20 쿠바 페소 수준)
- **일반인에 대한 수입차량 구매허가(2013년 12월)**
 - 1962년 엠바고 이후 신차 수입 및 판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국영기업이 수입하는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 허가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됨
- **신외국인 투자법 발표(2014년 3월)**

II. 쿠바와의 교역 환경

1. 쿠바의 교역현황

□ 개관

- 쿠바의 교역액은 연간 150억불 수준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다만, 국내산업 생산성 악화, 제조업 붕괴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역수지는 만성적자를 기록

< 쿠바의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단위: 백만달러)

연도	수출	수입	총교역액	무역수지
2009	3,080	8,269	11,349	- 5,189
2010	2,995	9,776	12,771	- 6,781
2011	4,142	11,556	15,698	- 7,414
2012	3,696	11,988	15,684	- 8,292
2013	3,647	12,410	16,057	- 8,763
2014	3,201	10,434	13,635	- 7,233

* 자료원 : IMF

- 2013년 기준, 쿠바 전체 교역은 미주(북미, 중남미) 55%, 유럽 27%, 아시아 15%, 중동·아프리카·대양주 3% 등의 비중으로 이루어짐
 - 특히 정치적 노선이 유사한 베네수엘라, 중국과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45%를 차지하며 베네수엘라와는 원유 및 광물, 중국과는 원유 및 광물, 중간재 및 소비재 거래를 주로 함
 - 한국은 중국,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 3대 교역국이지만 그 금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

< 쿠바의 연도 및 국가별 총 교역액 현황 >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2012		2013		2014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베네수엘라	960	4,582	1,126	4,467	1,053	3,492
2	중국	517	1,290	459	1,512	303	1,169
3	스페인	181	1,039	228	1,157	124	994
4	캐나다	540	465	484	501	508	446
5	브라질	94	625	97	581	61	559
6	멕시코	16	426	14	410	12	399
7	이탈리아	54	339	36	386	25	330
8	미국	85	512	-	394	-	329
9	알제리	3	360	2	362	3	203
10	프랑스	30	296	21	324	11	230

* 자료원: IMF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니켈,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설탕, 광물, 담배, 수산물, 럼주 등이 있으며 수입 품목은 원유, 기계류 및 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임

- 수출상품이 광물, 농산물 및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어 수출 성장 저해 요인이 됨

* 주요 수출품목 중 금속광물의 비중은 60%에 달함

- 반면 원유, 발전기 등 발전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입은 계속 증가 추세

□ 특징

- 쿠바는 정부주도의 경제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산업 혹은 품목별로 수출입 허가를 받은 공기업이 대외교역활동의 주체가 됨
- 쿠바와 거래를 하는 외국기업들은 쿠바대금결제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직거래가 아닌 제 3자(에이전트)를 통한 거래를 진행

- 쿠바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으로 360일 외상 혹은 720일 외상 거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며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에이전트 거래를 선호
- 쿠바 정부는 제 3자 거래로 인한 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자 해당 기업과의 직거래를 희망
- 동시에 수출국가 다변화, 수출제품 다양화 등 대외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임

⇒ 쿠바 정부의 직거래 희망으로 우리 기업의 쿠바 교역 기회도 증가

□ 한국의 對쿠바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 對쿠바 수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214	345	48	63	74	74	58	56
수입	3	4	8	9	30	2	10	12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KITA

- 한국은 '13년 기준 쿠바의 아시아 3대 교역국(중국 70%, 베트남 11%, 한국 5% 등)
 - 한국의 對쿠바 수출은 '05년도 4천만불 수준이었으나 '06년~'08년 사이 쿠바 정부의 정책 구매품목인 발전기, 에어컨 및 냉장고의 수출로 급증
- 주요 수출품목 :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승용차, 자동차 부품, 원동기, 의약품
- 주요 수입품목 : 주류, 연초류, 알루미늄피 및 스크랩, 당류, 커피류,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축산물부산물

2. 미국의 對쿠바 경제제재

□ 미국의 쿠바 경제제재 현황 및 분류

- 미국이 쿠바에 가하고 있는 제재는 1960년에 시작된 엠바고와 1982년 시작된 테러지원국 규제이나 테러지원국 규제는 2015년 5월부터 해제
- 엠바고는 수출입, 여행, 송금, 금융 등 포괄적인 제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통령이 엠바고를 수정(완화 또는 강화)할 권한이 있지만 해제할 권한은 의회가 보유

<미국의 對 쿠바 제재 정책>

	제재 분류	관련 법안	규제 부처	해제 권한
미국의 쿠바 제재 ⇒	엠바고 (1962)	적성국교역법(TWEA) 대외원조법(FAA) 쿠바민주화법(CDA) 쿠바자유민주연대법(LIBERTAD)	재무부 상무부	입법부

□ 경제 제재 관련 법안 및 내용

-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적성국 교역법, USC 50 Appendix)
-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 쿠바에 대한 엠바고 시작(J.F.Kennedy)
- The 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s of 1963(CACR, 31 CFR 515)
 -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는 동 법안을 근거로 쿠바와 관련된 대금결제에 달러화가 사용될 경우 이를 규제
 - * 국내 일부 은행에서는 OFAC 제재로 쿠바 관련 대금 결제를 진행하지 않음

- Jackson-Vanik Amendment to the Trade Act of 1974
 - 쿠바의 미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삭제
- Export Administration Act(EAA) of 1979
 -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Cuban Democracy Act(a.k.a Torricelli Act of 1992, 22 U.S.C Chapter 69)
 - 쿠바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미국 기업 해외 자회사의 무역 금지, 쿠바에 기항(寄港)한 선박은 1백80일간 미국 입항 금지 등
-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Libertad", a.k.a Helms-Burton Act, 22 U.S.C Chapter 69A)
 - 국유화된 미국 소유의 사탕수수 가공 공장, 광산, 통신시설, 호텔, 은행, 부동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경영진, 주주 및 가족들의 미국 입국 금지, 59년 쿠바혁명으로 쿠바에 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억류당한 미국인이나 기업들이 쿠바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허용 등
- Trade Sanctions Reform and Export Enhancement Act of 2000
 - 인도적 차원의 미국 식품 및 의약품 판매 일부 허용
- Omnibus Appropriations Act of 2009
 - 오바마 대통령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 오바마 대통령의 對쿠바 주요정책

- 당선 후, 2009년 4월 17일, 47년 만에 쿠바 제재 완화 정책 발표
- 2010년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對쿠바 금수조치를 완화방안으로 항공기 운항확대, 페리 취항, 쿠바에서 신용카드 사용 허용 등 제안
- 미국 정부 2014년 12월 17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2015년 1월 16일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 미국 정부 2015년 1월 16일 對쿠바 1차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 2015년 5월 미국 쿠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 2015년 7월 워싱턴에 쿠바 대사관 개소, 2015년 8월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개소
- 2015년 9월 2차 對쿠바 엠바고 완화 발표
 - (제 3국 경유 없이 쿠바여행 허용) 미국→쿠바로 쿠바계 미국인의 여행 횟수 및 기간 철폐
 - (통신규제완화) 미국의 통신 회사가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설치해 위성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 규제 완화
 -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위한 미국 사법권 내 주체의 쿠바 법인 설립 가능
 - (송금제한철폐)가족 송금, 기부성 송금의 한도액이 완전 철폐됨

3. 미국의 對쿠바 제재완화(1차, 2차)

□ 쿠바 여행(방문) 관련 규제 완화

- (1)가족 방문, (2)미국 정부, 타국 정부, 특정 국제기관 공무상 방문, (3)취재, (4)전문연구, (5)교육, (6)종교, (7)체육, 워크숍, 대회, 전시회, (8)쿠바 국민 지원, (9)인도적 프로젝트, (10)민간 연구·교육재단 활동, (11)수출입 및 정보교류 활동, (12)특정 수출 거래 등 12개 분야의 쿠바 방문을 제 3국 경유 없이 허용
- 쿠바 방문 중 사용 가능한 금액 한도 폐지(2차 완화)
- 쿠바에서 미국으로 재입국 시, 400달러 이하의 물품 반입 가능
 - 단, 주류 및 담배는 100달러 이하
- 쿠바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허용

□ 여행 서비스

- 미국 소재 항공사 또는 여행사가 쿠바와 미국 간 또는 쿠바 내에서 노선 운행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
- 승인된 여행자는 제 3국 경유 없이 양국 간 해상 운송이 가능하며 선박 내 숙박 가능함(2차 완화)
 - 일부 선박(화물선, 여객선 모두 포함)의 14일 이내 일시적 쿠바 체류 허용, 일부 항공기의 7일 이내 일시적 쿠바 체류가 허용됨
 - 가족 방문 시 여행허가자 동행이 가능하며, 가족 방문 외 승인된 여행 목적으로 병행 방문 가능
 - * 가족 방문의 범위는 3대 이내 혈연, 결혼, 입양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

□ 송금한도 철폐

- 가족 송금, 기부성 송금의 한도액이 완전 철폐됨(2차 완화)

□ 금융 및 보험

- 미국 예금기관, 쿠바 국적 금융기관에 환거래 계좌 개설 가능
 - 해당 환거래 계좌는 (1)상호 환거래를 위한 인증 키 교환 등의 테스트팅 협약(testing arrangement), (2)승인된 12가지 목적의 여행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관련 거래에 사용 가능
 - 기존 미국 관할권 외 개인의 송금에 대해 미국 예금기관이 해당 거래를 차단(block)해야 했으나, 이제 거부(reject)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 단, CACR에 명시된 쿠바 정부 및 공산당의 제재 대상 관련 거래는 차단 필요
- 쿠바에 위치한 제3국의 외교공관 또는 미국이 멤버 또는 옵서버로 속해있는 국제기구의 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 운용을 위한 미국 예금기관의 자금 거래 허용
- 미국 보험사, 쿠바 여행객에 보험 제공 허용
 - 미국 보험사가 쿠바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건강, 생명, 여행 보험 서비스 제공 가능
 - 미국인의 경우 허가된 쿠바 방문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 가능
- 미국 사법권 내 주체*가 쿠바 외 거주 쿠바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 하는 것이 허용됨(2차 완화)
 - * 미국 사법권 내 주체
 - 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미국 내/외 거주 여부 상관 없음
 - ② 미국 내 개인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미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치외법권 밖에서는 미국 사법권의 적용 대상
 - ③ 미국 사법권(연방, 주, 미국령, 자치령 등) 하에서 설립된 기업 및 단체 : 미국 기업도 포함되지만 외국기업의 미국 법인(지사) 포함
 - ④ 1번 또는 3번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및 단체 : 국내외 모두 포함하여 미국인 또는 미국 자본의 출자/합작 회사 모두 포함
- 쿠바인이 쿠바 외 체류 기간 동안 금융 기관의 계좌 개설 및 유지, 거래 가능함(2차 완화)

□ 선지급 거래 정의 변경

- 수출 시, 선지급(cash-in-advance) 관련 규정 변경
 - 기존에 미국에서 쿠바로 수출 시 '배송 전 지급'(cash before shipment)이 필요했으나 선지급의 정의를 '소유권 양도 전 지급'(cash before transfer of title and control)으로 변경

□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

-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US owned or controlled foreign companies)가 미국에서 100% 생산된 제품을 상무부가 승인한 품목에 한해 제3국에서 쿠바로 수출 가능
-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쿠바와 거래할 경우, 특정 품목*을 제외한 수출입에 대해 특별 라이선스 발급 필요
 - * 재수출이 불가능한 특정 품목: 전략적 물자, 미국의 기술적 정보, 달러화 거래

□ 선박 관련 규제 완화

- 기존 쿠바민주화법(CDA)에 따라 쿠바에 기항한 선박은 이후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이 금지되었으나, 아래 사유로 쿠바에 기항한 경우 예외 대상으로 분류
 - (1)승인된 미국기업 해외 자회사의 수출입, (2)정보교류 관련 선박, (3)제3국 농산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EAR99 포함 품목)의 쿠바로 수출 및 재수출, (4)제3국의 선박 중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한 학생, 교사진, 관련 직원 운송

□ 수입

- 쿠바의 개인 사업자(independent entrepreneur)가 생산한 특정 제품에 한해 미국으로 수입 가능
- 미국으로 쿠바산 제품 및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쿠바에 있는 사업자가 국유 기업이 아니라는 증빙서류 필요
- 국무부가 수입 불가능 품목 발표
 - '15년 2월 6일, 국무부가 쿠바로부터 수입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이 불가능한 HS코드 품목을 발표
 - 수입 불가능 품목: (미국 HS코드 2자리 기준) 01~32(동식물 및 관련 제품), 35~36, 38(화학제품), 51~52(섬유류), 72~81(금속), 84~89(기계류 및 자동차), 93(무기류)
 - 이에 따라, 담배 및 주류의 상업적 수입은 불가
 - 국무부는 향후 관련 홈페이지(<http://www.state.gov/e/eb/tfs/spi>) 및 미국 관보를 통해 수입 가능 품목을 업데이트할 예정

□ 수출

- 건설, 농업, 자영업 등을 위한 장비 및 자재 수출 허용
 - 민간부문에서 사용되고 사유 건물, 주택, 종교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등의 건설 및 보수를 위한 건설 자재, 장비, 도구 등
 - 민간부문의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 민간부문 기업가(entrepreneur)들이 사용하는 도구, 장비, 자재, 기구
- 쿠바 방문객에게 필요한 과학, 고고학, 문화, 생물학, 교육, 역사 보존, 스포츠 등 전문 연구에 필요한 장비 등의 임시적 수출 허용
- 통신 수단 개선을 위해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제품, 또는 통신 인프라 건설 또는 보수를 위한 제품, 일반인을 대상으로 뉴스 수집 및 배포를 하는 언론인이 사용하는 제품 등의 수출을 허용

- 상무부는 EAR*을 수정하여 기존에 기부형태로 수출 및 재수출이 가능했던 통신기기의 상업적 수출을 허용

*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미국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

- 수출허용 품목:

(1)컴퓨터, (2)디스크 드라이브 및 저장장치, (3)입출력 장치, (4)그래픽 가속기 및 코프로세서(coprocessor), (5)모니터, (6)프린터, (7)모뎀, (8)네트워크 접근제어 및 통신 채널 제어기, (9)키보드, 마우스 등 유사 상품, (10)휴대전화기, 셀룰러 또는 위성 전화기, PDI, SIM카드 및 유사 상품, (11)메모리장치, (12)정보보안장치, 소프트웨어(암호화 소스코드 제외), (13)디지털 카메라 및 메모리카드, (14)TV, 라디오, (15)녹음 및 녹화 장치, (16)배터리, 충전기, 휴대용 케이스, 등 주변제품, (17)소비자용 소프트웨어(암호화 소스코드 제외)

-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2차 완화)

-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사법권 내 주체의 쿠바 내 법인 설립(쿠바 주체와의 합작 투자 포함)이 허가됨
- 미국 사법권 내 주체의 쿠바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입 가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쿠바인 고용 가능
- 허가된 개인용 통신기기의 판매와 기증 뿐만 아니라 임차, 대여 형태의 거래 가능

- 쿠바 내 물리적 주재 및 활동(2차 완화)

- 미국 사법권 내 주체가 사무실, 소매점, 창고 등 물리적 주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
- 해당 허가는 보도국, 농산물 및 건축자재 등 해외자산통제국의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 국제 특송 및 화물 업체,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업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여행사로 제한함
- 상기 개인 및 업체는 쿠바인의 고용, 쿠바 내 은행 계좌 개설 및 유지가 허용됨

○ 기타

- 쿠바 국민의 생활 여건 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선물품 수입 허용 (주류 및 담배 제외), 교육 교류 활동 확대, 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외교 관계 지원 등이 포함됨

□ 쿠바 금융 관련 참고사항

○ 쿠바정부, 파리클럽과 부채탕감 협상 진행 예정

- 파리클럽은 2013년 비공개로 쿠바를 방문, 2010년 이후 공개하지 않은 외환보유고 등 재정 상태를 밝히는 조건을 내세움
- 협상이 진행될 경우 부채의 일부를 탕감하고 일부는 10년 분할 상환, 일부는 국영기업 지분 출자전환 추진 예상
- 2012년 말 기준, 쿠바는 파리클럽 회원국에 355억 달러의 부채 보유

< 쿠바내 외국은행 현황 >

은행명(국적)	영업내용
BBVA(스페인)	· 1995년 지점 개설. 금융업, Project Financing
BANCO SABADELL (스페인)	· 1995년 지점 개설.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제공
Havin Bank Ltd. (쿠바)	· 1972년 쿠바자본으로 영국에 개설한 Havana International 은행의 쿠바 지사로 1995년 쿠바 지사 설립 · 예금, 대출 보증, 상업어음 발행 및 국제금융업무
National Bank of Canda (캐나다)	· 1995년 지점 개설. 양국 간의 교역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캐나다 기업 및 투자자에게 컨설팅 제공
Société Générale (프랑스)	· 1996년 지점 개설 · 수출입 금융제공, 쿠바 잠재투자자 지원
Fransabank Sal (레바논)	· 1995년 지점 개설 · 쿠바 기업에 금융서비스 제공, 중·단기 Project Financing
Republic Bank Limited (트리니다드 토바고)	· 2002년 지점 개설 · 쿠바내 금융기관에 신용한도 제공, 수출입 금융 제공
기타은행	· BPCE-IOM(프랑스), BANKIA S.A(스페인), SCOTIABANK(캐나다)

III.

쿠바 투자 환경

1. 개관

□ 투자유치 현황

- 쿠바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쿠바 외국인 투자의 50% 이상이 EU 자금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밖에 캐나다 및 중남미 국가가 주요 투자국인 것으로 예상
- 외국인 투자 기업은 주로 에너지, 광업, 관광업에 주로 투자하며 그 뒤로 건설, 경공업, 식품 산업 등에 투자

< 국가별 對쿠바 투자 현황 >

No.	국가	투자분야
1	스페인	관광, 상공, 시멘트, 광구개발, 상수도
2	캐나다	니켈광산
3	프랑스	럼주 제조
4	스위스	생수 및 음료
5	이스라엘	부동산
6	베네수엘라	정유시설

* 자료원 : 주 쿠바 스페인대사관

- 브라질 및 베네수엘라, 쿠바 시장 선점 경쟁
 - 베네수엘라는 2007년 쿠바와 15건의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소프트웨어 개발, 광맥탐사 등 총 6개 분야 관련 7개의 합작 기업을 설립
 - 브라질 역시 니켈광산 개발, 항구 건설 등의 분야 진출을 위한 합작 기업을 설립. 쿠바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리엘 경제특구의 경우 브라질에서는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브라질의 대표적 건설기업 ODEBRECH가 시공

□ 투자 유치 정책 방향

- 쿠바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쿠바 경제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부여코자 함
 - 쿠바 정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배포
 - * 신외국인 투자법이 반영된 포트폴리오는 금년 하반기 발표 예정
- 외국인 투자를 통해 수출 증진과 수입대체화를 이룩하고자 하며 외국 자본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대를 통해 전력발전망을 변화하고자 함
 - 천연자원 채굴, 공공서비스 제공, 생명공학 개발, 도매업 및 관광 부문은 쿠바정부가 과반 지분 차지
- 외투기업의 인력고용은 국영인력과건회사(Employer entity)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임금은 고용기업과 외투기업 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며 노동자는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됨
- 쿠바 시장에서는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음

2. 新외국인 투자법 주요내용

- ▶ 쿠바 정부는 2014년 3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1995년의 외국인투자법(Law 77)을 대체하는 新외국인투자법을 발표

□ 관련법령 별 주요내용

- 발효일 : 2014. 6. 27 ('14.3.29 발표)
- 외국인투자법 Law 118/2014 (의회 통과)
 - 투자 보장, 투자가능분야, 투자 형태, 승인절차, 분쟁해결 방법, 금융 문제, 고용, 조세 등의 투자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룸
-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Decree 325/2014 (각료회의 발표사항)
 - 투자 프로젝트 관련 각종 진행절차 명문화,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 신설
-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uba) 시행규칙 Resolution 46, 47/2014
 - 외국인 투자자들의 쿠바 내 은행계좌 개설
 - 외국인 투자자의 쿠바 내 이익금 송금 허용
- 대외무역부(MINCEX) 시행규칙 Resolution 128, 129/2014
 -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기술타당성 조사결과 제시를 위한 방법론 수립
- 사회보장노동부(MTSS)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Resolution 16/2014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체제 규정: 임금 협상, 급여 세부 내용, 국영 인력과견회사와의 관계

□ 주요 변경 사항

- **외국인 투자자 소유권 허용** :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며 외국 거주 쿠바인의 투자도 허용
 - 과거에는 규정상으로만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었으며 실제로는 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아 사업 운영권 보장이 어려웠음
 - 외국거주 쿠바인의 투자 역시 실제적으로 거부되곤 했음
-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대사업과 소사업으로 구분, 소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45일 내 사업승인
 - * 기존에는 국가평의회 혹은 각료회의에서 승인하였으며 60일 이상 소요
- **조세감면 혜택**
 - 합작투자 혹은 조인트벤처, 국제경제 제휴계약의 외국인 투자자 파트너의 경우,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배당금 및 수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감면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국제경제제휴계약의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순수과세대상 수익에 대한 소득세 15% (과거에는 35%)를 사업 초기 8년간 면제
 - 투자를 위한 각종 기계·기기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면제

※ 신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

- ① 분쟁 발생 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쿠바 소재 중재 재판소에서 해결
- ② 합작회사는 쿠바의 국영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
 - 임금은 파견회사에 태환폐소(CUC)로 지급하며 파견회사는 노동자에게 불태환 폐소(CUP)로 임금 지급

□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 외국인투자의 보장

- 외국인 투자자는 공익 혹은 사회적 이해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법적 보호를 보장 받으며 국유화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법으로 보장
- 투자 배당금 혹은 이익의 해외 송금 가능(별도의 세금 혹은 수수료 없음)
-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기관의 승인 이후, 정부나, 협력 단체 혹은 제 3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팔거나 이전 가능

○ 투자가능분야

- 쿠바정부는 보건·건강, 교육, 군사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며 쿠바 정부의 우선투자 희망분야를 선정한 바 있음

○ 투자 방법

- 외국인 투자자는 합작회사, 완전 외국 자본 회사의 주주로 출자, 또는 국제 경제 협력 협정에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직접투자
- 직접투자를 제외한 주식, 기타 증권, 채권에 투자하는 비공개 투자

□ 직접투자 사업형태

○ 합작투자 혹은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새로운 주식회사(기명주식)를 설립하는 형태로 회사운영은 쿠바의 내국법 규정을 따름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의 출자 자본금은 상호합의를 통해 정하며 투자승인서에 명기
-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 법인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지사, 대표 사무소, 자회사 혹은 해외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외국자본회사**(Totally Foreign Capital Company)
 - 투자 전액이 외국인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설립한 경우

- **국제경제제휴계약**(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Agreement)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특정 분야의 국제경제활동을 위해 맺는 계약으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음
 - 활동 분야 : 호텔, 생산 및 서비스 경영,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건설, 농업생산
 - ※ 외국인투자자 : 외국 주소와 외국 자본을 가진 개인 혹은 법인
 - ※ 내국인투자자 : 쿠바 주소를 가진 쿠바 국적의 법인

3. 마리엘 경제특구

□ 경제특구 개요 및 위치

- 마리엘 경제특구(La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 ZEDM)는 외국인 투자, 기술 혁신 및 산업 집중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기획
 - 총 면적은 465.4km²이며 아바나에서 서쪽으로 45km 떨어져 있음
 - 싱가포르의 PSA와 쿠바 국방부 산하의 Almacenes Universales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브라질 최대 건설사인 오데브레시(Odebrecht)가 항만 개발자로 선정
 - 총 소요예산은 6억 4,000만 달러 규모로 브라질의 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차관으로 건설(1차 계획)
 - * 마리엘특구 운영에 대한 법령은 2013년 11월 발표
- 마리엘 특구는 북미, 중남미, 카리브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지점에 위치
 - 마리엘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180km, 칸쿤에서 210km 거리

< 마리엘 발전 특구 위치 >



* 자료원 : 마리엘 발전특구 홈페이지

□ 현재 운영 상황

- '14.1월 1단계 개발을 마친 상태로 컨테이너 항을 중심으로 운영 시작
 - 마리엘 특구는 보존지역, 생태공원, 첨단기술 산업단지, 물류지구, 항만, 농식품가공지구, 수산업 발전지구, 기술단지 등으로 나누어 개발 예정
 - 컨테이너항의 경우 Super-Post-Panamax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으며 현재 1단계에서는 백만 TEU의 물동량을 커버할 수 있으며 향후 2022년까지 3백만 TEU로 확대예정
- 현재 7개의 투자기업이 승인됐으며 2개의 기업을 제외한 5개 기업이 100% 외국기업임

□ 마리엘 경제개발특구 투자 세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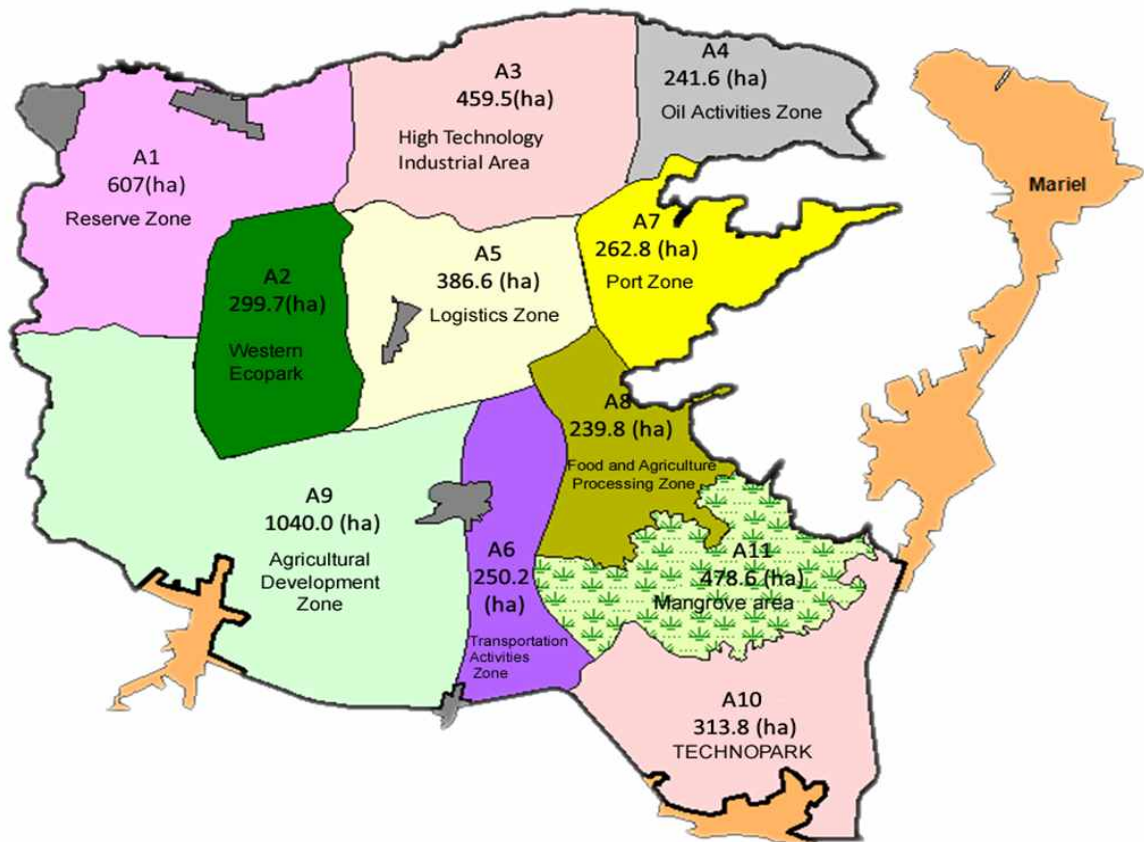
- 세제 혜택

세 금	혜 택
법인세	- 10년간 면제(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10년 이후부터 12%의 법인세 부여 - 수익금을 재투자 할 경우 추가 세제혜택 부여
도매세	1년간 면제(이후 1% 과세)
서비스세	면제
노동사용세	면제
수입 장비 관세(투자를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면제
지역발전세	면제
복지세	14%
환경세	투자 후 안정기까지 50% 면제

* 자료원 : 마리엘 발전특구 홈페이지/ KOTRA 번역

□ 마리엘경제특구 2차 개발계획(Sector A)

- 마리엘경제특구청은 2차 개발계획으로 Sector A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11개의 테마구역으로 나눔



* 자료원 : 마리엘 발전특구 홈페이지

- A7구역은 마리엘 컨테이너 항구가 위치한 곳으로 2014년 1월 운영이 시작됐으며 개발특구청은 본 지역을 항만지역으로 개발할 계획
- A5구역에는 물류창고지역으로 약 10,000m²의 건화물 컨테이너 적재장소 및 5,000m³의 냉동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A5구역에는 은행, 쇼핑센터, 창고, 사무실 등의 상업시설을 건설할 계획
- A8구역에는 농업지구 및 농산물 가공지구가 개발될 예정
- A3구역에는 전자기기, 부품 등 최첨단 산업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

□ 투자 가능분야 및 담당 기관

-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신약 개발, 제조업, 물류포장산업, 정보통신기술, 신재생에너지, 관광업 및 부동산업, 농업 및 식량 산업, 인프라 분야 투자를 환영하며 특히 최첨단 기술, 청정 기술 분야의 투자를 선호
- **마리엘 발전특구 사무소**(La Oficina de la Zona Especial de Desarrollo Mariel)에서는 Single Window 시스템을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 투자 프로젝트 접수 및 신고, 각종 인허가 획득 등을 책임지며 투자 계획 접수 후 65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승인 예정



*모든 투자자들은 항상 쿠바 정부 기관의 가이드를 따라야 한다.

*절차에서의 모든 면허 및 인허가는 쿠바 정부 기관과 에이전시 소관이다.

* 자료원 : 마리엘 발전특구 홈페이지

□ 마리엘 경제특구 투자 이점

-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물류 인프라를 확보
- Single Window 시스템을 통한 모든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
- 대학과 각종 연구소가 근방에 위치하여 전문인력 확보 용이
- 세금 감면 혜택 부여

4.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산업

- ▶ 쿠바정부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허용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한 11개의 투자유치 우선분야를 선정

□ 투자유치 우선분야 및 적용 원칙

○ 농업 및 임업

-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는 광범위한 농업 진흥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을 위한 임업경영 실시
- 담배잎 생산 및 시가 생산은 국가 독점 산업으로 유지
-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속하며 쿠바 정부는 외투기업에 토지사용권을 허용

○ 식량산업

- 원자재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까지 연계되는 전체적인 밸류체인 형성을 목표로 하며 랍스터 수획 및 가공산업은 외국인 투자 불가

○ 설탕산업

- 기존 설비의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함
- 동시에 사탕수수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도 추진
- 생산망 전체를 포괄하는 기업에 우선권 부여 예정

○ 제조업

- 국내 수요 충족 및 수입대체화를 위한 신규투자 및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 철강 기계류, 화학 및 전자 분야 포함

○ 관광업

- 호텔 신규 건설 및 기존 시설물과 관광 인프라 리모델링
- 골프장 건설 및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건설
- 유명 외국 호텔체인과 협력하여 경영과 마케팅을 다양화

- 운수업 : 항만시설, 조선소 내 선박건조 및 수리, 선박 계약 및 관리, 운항보험, 예비부품 생산 등
- 보건 : 의료서비스 수출 및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 건설업
 - 건설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기술 도입, 건설자재 및 관련 부품 생산 증대 추구
 - 인프라 및 산업 기반 건설, 골프 코스 혹은 호텔 등 각종 관광 인프라 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 에너지 및 광업
 - 광업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및 가공, 화석연료의 탐사 및 생산,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화석연료 발전 프로젝트 추진
- 상업
 - 자원 확보, 선진 경영기술 도입을 통한 도매사업 발전도모
 - 전략영역 내 외국인 투자는 합작회사 혹은 국제경제제휴계약의 형태로 진행
-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 분야
 - 완제품 생산 및 제네릭 의약품 원재료 생산
 -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국내 생산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투자 허용

□ 주요 분야별 프로젝트 현황

[신재생에너지]

- 쿠바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1) BOT방식을 통한 IPP 생산 혹은 2) 쿠바 전력조합(UNE, Electirc Union)과의 조인트 벤처로 가능
 - 생산 전력은 UNE에서 전량 구매하여 자체 송배전망을 통해 전송하며 전력 구매 단가는 각 프로젝트별로 경제기술 분야의 사전가능성 조사를 통해 정부와의 협상으로 산정
- * IPP(Independetn Power Plant) :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발전소를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간주도형 발전사업
- 쿠바 북동쪽은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적합한 수준의 풍량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를 통해 600~650MW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희망
 - 쿠바는 주로 육상 풍력 발전을 시행하며 물류 환경으로 인해 1.5MW용량의 발전기를 사용
 - 현재 중국 및 스페인 기업이 쿠바에 각 51MW 규모의 풍력단지를 건설 중
 - 풍력발전의 경우 물동량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생산이 적합한 투자방법이며 마리엘 경제특구를 활용 가능

쿠바 풍력에너지 잠재력 분포 지도, 2011



* 자료원 : 쿠바대외무역부



* 자료원 : 쿠바대외무역부

- 사탕수수 부산물, 농림축산업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을 희망하며 2020년까지 400MW의 설비를 설치할 계획
 - 2020년까지 3,200만 톤의 사탕수수를 가공할 계획(현재 1,500만 톤)
 - 현재 고압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저압보일러를 활용한 효율성 증대가 필요

[석유 및 광업]

- 쿠바는 멕시코 만 유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희망
 - 쿠바는 멕시코 만에 위치한 심해유전을 52개 블록으로 나누어 외국 기업에 탐사를 위해 분양하였으며 중국,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
 - * 인근해역은 45개 블록으로 분류
 - Cupet(쿠바국영석유회사)은 단독 혹은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석유 탐사 및 생산 활동을 수행
- 쿠바의 주종 광물은 니켈이며 구리, 납, 아연 등의 광물에 대한 탐사 중
 - 쿠바 정부는 쿠바 중부, Ciego-Camagüey-Tunas 지역, Holguín-Sagua-Baracoa 지역, Sierra Maestra지역에 광물 매장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

[관광업]

- 관광업은 쿠바의 주요 산업이자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아바나 및 주요 해변을 중심으로 발달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골프 코스 개발, 리조트 및 호텔 추가 건설 등이 주요 추진 프로젝트
 - 호텔은 최소 80~120개의 룸을 보유해야 하며 Trinidad, Ancón and Las Caletas(Sancti Spiritus주), Santa Lucía(Camagüey주), Covarrubias(Las Tunas 주), Guardalavaca(Holguín주), Cienfuegos 등이 주요 투자지역임
 - * 2013년 기준, 스페인, 포르투갈, 자메이카, 프랑스, 캐나다 등 17개국의 외국계 호텔 체인과 62개의 호텔 계약 체결(총 31,277룸)

< 쿠바 관광산업 현황 >

- ▶ 쿠바통계청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28만 2734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0,804명이 늘어난 수치
- ▶ 2013년에는 285만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했으며 약 1/3 가량이 캐나다 국적이며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 및 베네수엘라 순
- ▶ 쿠바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쿠바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18억 4백만 달러로 숙박 및 요식업에 집중

IV.

주요국 對쿠바정책

- ▶ 쿠바는 유엔가입국 195개국중 190개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하는 등 외교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시 하고 있음 (주요 미수교국 : 미국, 이스라엘, 한국)
- ▶ 145개 외교공관이 쿠바에 주재, 쿠바는 120개국 147개 공관을 전 세계에 운영. 사회주의 혁명이념의 세계적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봉쇄 및 관타나모 기지 등 주요이슈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1. 미국

□ 미국 내 쿠바사회 형성

- 대부분의 쿠바 이주 인구는 59년 혁명으로 인해 정치적 이주를 택해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
 - 1959년 쿠바 혁명으로 중산층 자본가들의 미국 정치 망명
 - 1980년 마리엘 보트리프트* 사건으로 약 12만 5천명 대규모 해상 이주
 - * 1980년 4월 15일에서 10월 31일까지 쿠바인 마리엘 항구에서 미국으로 대규모 이주
 - 90년대 이후 구소련 붕괴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
- 쿠바계 이민자는 미국 히스패닉 중 멕시코(64.3%), 푸에르토리코(9.1%)에 이어 세 번째(3.5%) 규모이며 전체 쿠바계의 70%가 플로리다 남부 거주

□ 쿠바 이주민의 정치적 성향

- 쿠바계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플로리다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Swing State)로 쿠바 정책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
 - 미국의 쿠바 엠바고는 쿠바 망명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지속
 - * Swing State : 대선 때마다 정책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을 번갈아가며 지지하는 주

- 미국에는 현재 쿠바계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다수가 공화당 소속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미국의 쿠바계 주요 정치인 >

	▶ 113대 美 의회 상원의원 - '10년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으로 초선 성공 - 공화당 소속/쿠바계(쿠바이민자 부모) - '13.5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하며 공화당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는 인물 -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 113대 美 의회 상원의원 - '14.1월 미 상원 외교위원장 취임 - '06년, '12년 뉴저지 주 상원의원 - 민주당 소속/쿠바계(쿠바이민자 부모) - 이민법 개혁안 강경 지지자
	▶ 113대 美 의회 상원의원 - '12년 텍사스 주 상원의원으로 초선에 성공 - 공화당 소속/쿠바계(쿠바이민자 부친) - 총기 소유 찬성론자 - 오바마케어 폐지 주장 및 섯다운을 강행 의지 표명 * 공화당 내에서 힐러리와 경쟁구도를 펼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주목할 만한 쿠바계 정치인
	▶ 美 의회 하원의원 - '89년부터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으로 재직 - 공화당 소속/쿠바 출생 -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역임('11-12년) - 미국 의회 최초의 쿠바계 의원이며, 최초의 히스패닉 여성의원 - '03년 북한 금융제재 법안 공동발의
	▶ 美 의회 하원의원 - '03년부터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으로 재직 - 공화당 소속/쿠바계(쿠바이민자 부모) - '85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전향 - 피델 카스트로의 첫 번째 부인인 미르타 디아즈-발라트의 조카

□ 미국 내 對쿠바 경제제재에 대한 입장

- 쿠바 엠바고는 쿠바계 이주민의 강력한 지지로 지속되었으나 최근 미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쿠바 엠바고 철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
 - 1) 카스트로 정권의 공산주의 정책 완화와 각종 개혁 정책 추진
 - '14.3 발표된 신외국인 투자법은 쿠바 이민자의 쿠바 투자 허용
 - 2)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의 원유저가공급이 불확실해지며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하고 교역 확대를 통한 외화 확보가 절실해 미국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 되고 있음 (미국의 제재 완화 후 '13년 미국의 對쿠바 수출 3.6억불로 급증)
 - 3) 쿠바계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적음
- 미국 상공회의소 도너휴 의장은 2014년 5월 말 상공회의소 이사진들과 함께 쿠바를 방문하고 미국의 경제 제재에 반대 의견 표명
 - 상의는 미 정부의 엠바고 철폐를 지지하며 쿠바가 미국을 위해 안전한 투자처임을 강조하고 마리엘 특구 방문을 방문하기도 함
- '15. 9. 25 미국 상공회의소와 코바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미-쿠바 사업 위원회(U.S.-Cuba Business Council : USCBC)' 개설
 - 美 의회, 정부-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쿠바 무역장벽 해소 및 양국간 무역증진 목표
-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 쿠바 방문('15. 10)
 - 쿠바 고위급 인사와 미국의 對쿠바 무역 제한조치 완화 등에 대해 논의
 - 미국-쿠바 규제대화를 개최, 9.18일부로 발효된 2차 엠바고 완화에 대한 구체적 이행 협의

2. EU

□ EU의 對쿠바 제재

- EU는 1996년 쿠바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쿠바와의 관계를 제한*했으며 2003년 반정부 인사 투옥을 계기로 외교관계 단절(Diplomatic Sanction)
 - 고위급 정부인사 교류 금지, EU 외교관의 쿠바 내 개최 문화행사 참석 금지 등 경제 제재가 아닌 외교 제재 시행
 - * The common position of 2 December 1996 : 쿠바의 다자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장려하며 인권, 쿠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을 추구
- 스페인 주도로 동 제재는 2005년 중단되었고 2008년 철폐
 - 2005년에는 피델 카스트로가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났으며 2008년 라울 카스트로 정권 수립
 - 외교 제재 철폐는 민주화 이행과 인권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하며 2008년 800만 유로 상당의 원조 시행
- 미국의 쿠바 엠바고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반대 의견 표명

□ EU의 對쿠바 정책 변화

- '14.4.30, 쿠바와 EU의 정치협력협정체결을 위한 1차 회담 개최
 - '14.2, EU 외무장관회의는 쿠바와의 정치협력협정 협상을 승인했으며 쿠바 역시 EU의 협상 제안 수용
 - '10년 반정부인사 석방 및 쿠바의 자체적인 개혁 추진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
 - 정치적 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對쿠바 무역 증진 및 투자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EU(네덜란드, 프랑스) 장관 쿠바 방문('14.1, '14.3)

- '14.3, 프랑스 파비우스 외무부 장관은 프랑스 기업들이 쿠바의 에너지, 관광, 식량, 교육 및 문화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14.4, '14.8 각각 아바나와 브뤼셀에서 두 차례 협상
- '14.5, 프랑스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 통상관광장관은 2014 쿠바 국제관광박람회('14.5.6~10)에 참석하여 양국의 무역확대를 위한 단기신용 한도 설정, 프랑스기업의 마리엘특구 투자, 쿠바의 의료·바이오 산업에 대한 양국 협력을 제시

* 박람회 기간 중 AirFrance와 Cubana de Aviacion(쿠바 항공) MOU 체결

- '15.3 EU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수석 대표의 쿠바 방문
- '15.9 EU-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쿠바와 관계정상화 협상을 서둘러 진행할 것을 약속
-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교섭이 계속되는 가운데 EU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음

□ EU, 對쿠바 민간 투자

- 에어 프랑스, '16년 여름 성수기(5.28~10.26) 동안 쿠바행 노선을 세배 증설할 계획을 밝힘
- 스페인 호텔 운영사인 Melia Hotels International SA는 2018년까지 쿠바에 1만 5천여개의 객실 추가 건설 예정

3. 중국

□ 양국 간 고위급 인사교류 활발

○ '14. 7, 시진핑주석 쿠바방문

- 양국의 관계 발전 회고 및 미래 계획, 각 국의 개혁발전 및 공동 관심사(경제협력)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

- 양국은 경제무역, 농업, 에너지, 광산, 용자, 바이오 기술, 통신, 인프라 건설, 보건, 문화, 교육 등 분야의 MOU 체결

□ 중국-쿠바 경제·민간 교류

- 중국은 쿠바의 2번째 교역 파트너이며 쿠바 니켈의 가장 큰 수입 국가
 - 소련이 무너진 후 쿠바의 경제적 빈 공간을 중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점령
 - 중국 통신시스템 설비업체 중싱통신(ZTE), 쿠바 정부와의 합작기업인 에테스카(ETESCA)를 설립하여 전화와 인터넷망 사실상 독점
- 對쿠바 투자에도 활발히 참가
 -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은 2006년부터 쿠바 중서부의 마탄사스 지역에서 원유를 채굴
 - '14.2, 쿠바 ASPORT(Port industry Group)사와 중국 CHEC(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Ltd)는 산티아고항 다목적 터미널 건설협약 체결
- 쿠바 관광 중국인 급증
 - '14년 28,000여명의 중국인이 쿠바를 방문('13대비 27% 증가)
 -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상당수로 쿠바는 폐암, 당뇨, 뇌졸중 치료 등으로 유명
 - 2013년부터 중국 은련카드를 통해 쿠바 현지에서 현금인출 가능
 - 중국 항공사 에어차이나는 '15. 12월 부터 베이징-몬트리올(캐나다)-아바나(쿠바)로 이어지는 직항노선 운영 계획 발표

4. 일본

□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

- 양국 고위급 인사간의 활발한 움직임
 - '15.3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수도 도쿄를 방문한 리카르도 카브리사스 루이스 쿠바 각료 회의 부의장을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논의(과학, 문화, 교역, 투자, 관광, 재생 에너지 등)
 - * 200여 개의 일본 기업들은 루이스 부의장의 일본 방문기간 동안 쿠바 투자 세미나 개최
 - '15.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30여명의 경제인과 동행해 쿠바 방문

5. 기타 국가

□ 국제사회 쿠바 꺼안기

- '14.1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회의, '아바나 선언' 채택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 중남미 33개국 정상들이 모인 회담에서 미국의 쿠바 엠바고 철폐를 요청
- '15년 UN 총회에서는 미국 오바마대통령은 쿠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기타 미주지역

- 중남미 국가들과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을 기초로 우호협력 관계이나 민주화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내 경제공동체 활동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구에 국한 (OAS 회원자격 정지, IDB, 미주정상회의, FTAA에서 배제)

- 멕시코 : 멕시코 정부는 2014년 5월 쿠바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무역투자진흥기관인 ProMexico의 사무소를 개소하고 기업인 60여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하며 쿠바 투자 의지 표명
 - 쿠바와의 물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동질성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멕시코-쿠바 항공노선 증설, 멕시코 문화컨텐츠 기업들의 쿠바 진출 등 낙수효과기대
 - * ProMexico는 브라질의 APEX, 한국의 KOTRA에 이은 쿠바에 사무소를 개설한 세 번째 무역투자진흥기관임
- 캐나다 : 전반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
 - 캐나다는 1959년 혁명 이후에도 쿠바와 국교를 유지한 대표적인 교역·투자국으로 embargo 해지 이후, 쿠바 진출 캐나다 기업 및 쿠바-캐나다 합작기업은 미국과 직거래가 가능해져 전반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쿠바 제품을 수입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하던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
- 베네수엘라 : PetroCaribe 협약을 근거로 쿠바는 베네수엘라에서 저가에 원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쿠바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 쿠바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의료진 및 교사를 베네수엘라에 파견
 - 베네수엘라는 경제위기에 빠져 있어 현로 정권에서 PetroCaribe 협약에 수정을 가할 경우 쿠바는 즉시 에너지 부족국가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음
 -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최대 교역국으로 embargo 완화에도 불구하고, 교역에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브라질 : 다수의 브라질 기업들은 쿠바정부가 전략적으로 설립하는 마리엘 특구를 미국 및 중남미 국가 수출을 위한 거점 항구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미국의 embargo가 해제 된다면 브라질이 쿠바에 수출하는 다수의 품목군

(대두, 쌀, 옥수수, 가금류, 커피 등)에서 미국과 경쟁하게 되겠지만 그간의 우호관계를 고려할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베트남 : '15.10 쑥잉편상 베트남 주석과 50여명의 베트남 기업인들의 쿠바 아바나 방문
 - 베트남은 쿠바에게 있어 중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아시아 국가로 이념적인 공통점과 미국에 대항했던 역사적인 공통점을 바탕으로 유대관계를 맺어옴
 - 쑥잉편상 베트남 주석의 쿠바 방문 이전, 양국의 기업들은 제 1회 베트남-쿠바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6개 계약(agreement)을 체결 ('15.10.01, Havana Times)

V. 우리 기업 쿠바시장 접근 전략

1. 성장가능성이 높은 쿠바 시장

□ 교역 확대 잠재력이 높은 시장

-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2013년 기준 6,700만 불에 불과하며 쿠바 정부의 직거래 희망으로 한국 기업에게도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
 - 쿠바는 미국과의 경쟁이 없는 유일한 시장이었으나 엠바고 전면 해지 시에는 미국기업들의 진출 러쉬가 이어질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 선점이 필요
- 2012년부터 쿠바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정부 뿐 아니라 일반 쿠바인들 사이에도 한국과 한국 기업,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쿠바 내수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일반 쿠바인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나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한국을 보며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싶어 함
 - * 아가씨를 부탁해, 내조의 여왕, 시티헌터, 개인의 취향, 꽃보다 남자 등 다수의 한국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 국영기업과 내수시장 공동진출

- 쿠바 정부의 자영업자 육성 정책으로 많은 인구가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대신 자영업을 선택
- 또한 쿠바 정부의 부분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향후 쿠바의 소비시장 확대가 기대됨
- 쿠바에는 품목별로 수입허가를 가진 국영기업이 약 200여개 존재
 - 식품부, 대외무역부, 국방부 등 각 부처별로 산하에 관련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벤더 등록을 통해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음

- 쿠바 국영기업과의 거래는 대금결제 부분에 있어 L/C 대금 결제 애로 혹은 1년 외상거래 등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 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국가 전체가 필요한 물량을 해당 국영 기업에서만 취급하기에 주문 물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수출대금 미결제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 유력 중개상과의 협력 시스템 개발

- 쿠바 정부는 중개상의 마진으로 수출가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의 직거래를 희망하지만 대금 결제 문제 등으로 인해 처음부터 직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현재 쿠바 내에는 53개국 634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어 이들을 중개상으로 활용하는 쿠바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역사적, 경제적으로 큰 교류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192개사) 기업이 제일 많이 진출해 있으며 중남미 중계무역의 강자 파나마(89개사) 국적 기업도 다수 활동 중
 - 그 외에도 이태리(40개사), 캐나다(40개사), 멕시코(31개사), 중국(29개사), 프랑스(19개사), 독일(17개사)등이 영업 중임

2.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변화 전망

□ 교역환경 변화 전망

- 미-쿠바 관계 개선 및 미국의 엠바고 완화로 인한 수혜품목으로 정보 통신기기, 쿠바 민간 분야 양성을 위한 농기계, 건설기기 및 기자재 등을 꼽을 수 있음
 - 다만, 쿠바 정부만 수입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수출 증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임
 - * 과거에는 미국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통신기기의 쿠바 수출이 불가능했음
- 대금 결제 관련, 국내은행들은 완화 조치로 인해 쿠바와의 거래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일반 국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거래는 불가능
 - 최종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게 되는 '쿠바'정부에 대한 국가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공식적으로 일반 국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쿠바 L/C를 취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
 - 다만, 국내은행별로 쿠바L/C에서 대한 인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별로 은행을 접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과거 몇몇 한국기업은 L/C거래를 한 사례가 있음)

□ 엠바고 완화의 긍정적 영향

- 미국의 엠바고 전면 해제까지 걸릴 시간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계속된 완화 조치로 인해 쿠바 경제가 활력을 얻게 될 것은 확실시되고 있음
 - 미국에서의 송금한도가 폐지되고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관광업(숙박 및 요식업)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얻게 될 전망
 - * 2013년 기준, 미국에서 쿠바에 송금한 금액은 25억불 정도로 추산
 - * 쿠바 방문 미국 방문객 연간 10만명 수준
- 우리기업의 對쿠바 수출환경이 단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어렵지만 향후 쿠바 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임
 - 기존에 쿠바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베네수엘라, 중국, 브라질 기업들도 쿠바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쿠바시장 진출 기회
 - 이번 엠바고 완화 조치를 통해 이미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쿠바 시장 진출에 제약이 완화되었으며, 미국기업과 파트너링을 통한 쿠바시장 진출 기회 모색 가능

3. 우리기업의 쿠바 접근 전략

□ 수출 유망 품목

- 미국 엠바고 완화 조치의 수혜품목
 -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쿠바 민간 분야 양성을 위한 농기계, 건설기기 및 기자재 외에도 쿠바 정부가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광산업을 위한 자동차 및 부품, 호텔용 가전, 한류의 확산으로 인한 여성용 장신구 등
- 쿠바와의 교역은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아바나 국제박람회를 통한 국영 공기업과의 거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역 중대 기대 분야

- 쿠바 정부의 중고자동차 매매, 수입자동차 거래 제한 폐지 등으로 향후 자동차 및 부품 거래 활성화가 전망되며 특히 자영업 허가 업종의 하나인 관광산업을 위한 렌트카 시장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쿠바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호텔 및 리조트 건설로 호텔용 가전(냉장고, 에어컨, TV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로 가정용 가전의 경우도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음
- 장기화 된 경제제재로 인해 국내 인프라 및 산업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이며 경제성장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시급. 특히 쿠바의 주요 수출산업인 광업 및 에너지 산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수요 증가 가능

- 쿠바의 전력난 타개를 위한 발전기 및 부품, 농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비료, 노후화된 산업시설 재정비를 위한 각종 기계류 및 부품 등도 수출 유망 제품임
-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각종 장신구 등 여성을 겨냥한 소비재도 수출 유망제품으로 꼽을 수 있음

□ 아바나 국제 박람회 활용

- 매년 11월 첫주 개최되는 아바나 국제박람회에는 쿠바의 모든 기업이 방문하는 쿠바를 대표하는 전시회
 - 2014년에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영국, 한국 등 약 65개국 3,000개 외국 기업이 참가하여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
 - 동 전시회는 쿠바 바이어 뿐 아니라 중남미 각국의 바이어들도 모두 참가하는 중남미 대표 전시회임
- 쿠바는 열악한 통신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혹은 이메일을 통한 업무진행이 어렵고 중앙 정부에 각종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
 - * 일반적인 제품 마케팅 및 홍보 어려움
- 또한 쿠바 국영기업들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네트워킹 구축이 필수적임
 - 아바나 국박은 쿠바에 있어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쿠바기업들은 동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큰 신뢰를 갖게됨

< 2015년 아바나 국제 박람회 개요 >

- ▶ 시기/장소 : 2015.11.2-8, 쿠바 아바나 ExpoCuba (33회 째 개최)
- ▶ 참가규모 : 18,604 s/m 65개국 3,000개 기업
- ▶ 전시품목 : 종합

□ 무역보험공사 활용

- 우리기업의 쿠바시장 진출시 쿠바 내 한류 분위기를 활용하고 무역보험공사를 활용하여 Risk를 줄이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월 무역보험공사는 쿠바중앙은행/쿠바대외은행과 수출지원을 위한 750억원 상당의 무역보험 신용공여 양해각서를 체결

※ 참고

◇ 한국, 對쿠바 대금 결제를 위한 무역보험 신용공여 양해각서 체결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월 9일 쿠바 아바나에서 쿠바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uba, BCC) 및 쿠바대외은행(Banco Exterior de Cuba, BEC)와 한국기업의 對쿠바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신용공여 양해각서를 체결
- 무역보험공사는 쿠바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6천만 유로(약 750억원) 한도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쿠바중앙은행은 수입 대금결제를 위해 쿠바대외은행을 통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해 승인서를 발급하기로 합의

<한국 기업의 對 쿠바 수출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구조도>



[자료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 향후 對쿠바 한국 수출 기업은 수출신용 거래 시 제3국 은행의 보증 없이 쿠바중앙은행이 승인한 신용장만으로 거래가 가능
-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쿠바 진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이었던 수출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고 평가

○ 미국기업들의 통신 서비스 분야 진출 유망 예상

- 지난 4월 숙박 시설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이(Airbnb)가 성공적으로 쿠바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을 모델로 많은 기업들의 진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통신망 설치 등 분야는 아직까지 직접 진출 위험이 높아 쿠바내 주체 또는 유럽 및 제 3국 파트너와 협작을 통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 마리엘 특구의 전략적 활용 : 물류 및 제조기지

① 물류기지

- 쿠바는 북미와 남미 대륙 사이 카리브 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16세기 이후 스페인, 영국, 미국은 쿠바를 점령하기 위해 서로 경쟁
 - 스페인 식민 시대에는 해군기지로 활용되었으며 독립 이후에는 관타나모 (Guantánamo)에 미국의 해군기지 운영
- 최근에는 북미시장에의 접근성,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의 물류 허브로서의 잠재력 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쿠바에서 미국 마이애미까지의 거리는 약 370km에 불과하며 중남미 물류, 교통 허브로서도 충분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
- 마리엘 특구는 파나마 운하 확장과 더불어 북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을 아우르는 물류허브로 활용 가능함
 - 마리엘 특구는 현재 1단계 개발을 마치고 부두길이 700미터, 1백만 TEU 규모의 컨테이너 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2단계 개발이 끝나는 2022년에는 2.1km의 부두에 3백만TEU 규모로 확대 예정
- 마리엘 특구는 자체 컨테이너항 이외에도 아바나-피나르 델 리오(Pinar del Rio, 쿠바의 서남부 도시)고속도로, 아바나-마리엘을 연결하는 판아메리카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철도교통 인프라, 항공 인프라(아바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도 보유하고 있어 쿠바 국내외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② 제조기지

- 마리엘 특구는 쿠바 내의 다른 지역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제조기지로서의 장점을 보유
 - 물류 인프라 외에도 상하수도, 안정적인 전력망, 광통신망을 보유

- 쿠바는 정부의 무료 교육 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다른 지역보다 수준 높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전 국민의 90%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문맹률은 1%
 - 과학정보통신 전문대에서 매년 수준급의 기술자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이들 졸업생을 대상으로 캐나다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

□ ALADI, ALBA 등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중남미 진출

- 쿠바는 중남미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에 가입해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회원국에 수출 할 경우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회원국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쿠바
- 중미·카리브지역은 서로 유사한 기후, 생활습관, 경제발전정도를 가지고 있어 **중미·카리브형 제품**을 개발 하여 해당지역을 공략 가능
 - * 중미·카리브지역은 멕시코, 남미지역 국가들과 비교할 때 소득격차가 있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그대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
- 쿠바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중남미의 좌파국가들과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를 결성하고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어 쿠바 성공사례를 레퍼런스 삼아 다른 중남미 국가에 진출 할 수 있음
 - * 회원국 :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안티구아 바부다, 에콰도르, 세인트 빈세트 그레나딘, 도미니카 ('09년 온두라스의 쿠데타 이후 탈퇴)

4.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서의 쿠바

- ▶ 한-쿠바 양국이 지속가능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쿠바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
- ▶ 식량 및 에너지 등 생존에 필수적인 산업, 의료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국가의 정책 산업, 외화 수입원이 되는 산업 등

□ 의료 · 바이오 산업

- 쿠바는 1962년부터 의료, 바이오 산업을 정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현재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당뇨, 항암(폐암, 자궁, 결장, 전립선),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있어 강점 보유
 - 항 바이러스 단백질(Interferon), B형 뇌막염 백신, 당뇨족궤양(Heberprot-P) 치료제 등은 전 세계에서 쿠바를 비롯한 소수 국가만 생산 가능
 - 또한 나노 산업 역시 쿠바의 경제를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 지정되어 의료 ·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도 나노 기술을 접목하고 있음
- 쿠바는 2011년 기존의 의료 · 바이오산업 분야의 38개 기업 및 연구소를 통합해 BioCubaFarma를 설립하여 쿠바의 의료 · 바이오 연구, 내수 및 수출을 위한 의약품 생산을 총괄하고 있음
 - BioCubaFarma는 쿠바의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치료/예방 목적의 백신, 진료 및 의료 기기를 생산하며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도 병행
 - * BioCubaFarma의 설립은 2011년 발표된 쿠바의 경제사회 개혁안의 일환으로 수입 대체화, 첨단기술 제품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함
- 쿠바에서 생산된 의료 · 바이오 제품은 현재 5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013~2017년에는 약 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의료 분야의 전문인력을 베네수엘라, 브라질, 중국 등 우호국가에 파견하여 기술 이전에도 힘쓰고 있음
 - 의료인 수출은 쿠바의 주요 외화 소득원으로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에서 수출하는 원유, 브라질 정부에서 제공한 마리엘 특구 건설을 위한 차관 등을 갚아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제약 분야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 쿠바와의 전략적 제휴가 가능
 - 인력 교류 및 기술 교류, 쿠바 내에서의 생산 협력 등의 접촉 창구는 BioCubaFarma로 정해져 있어 보다 빠른 업무 진행이 가능
 - 다만, 의료 기기의 단순 수출은 MediCuba, GCate 등 보건부 산하의 수입공기업을 접촉해야 함

□ 전력

- 쿠바는 전력생산의 86%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재정 부담의 최대 요인임 * 12%는 유전 부산물 가스, 나머지는 디젤 시탕수수 수출 바이오 연료, 태양열, 수력 등
 - 쿠바 정부는 연간 230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 수입비용 절감 및 단전 방지를 위해 2005년부터 발전 및 송전 설비 현대화 투자 확대

< 쿠바 연도별 전력 생산량 >

(단위 : GWH)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산량	15,634	15,341	16,468	17,622	17,722	17,727	17,395

자료 : 쿠바 통계청 2010년 자료

□ 통신

- 쿠바의 이동통신은 Cubacel이 독점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쿠바인의 이동통신 가입을 전면 허용하여 사용자는 증가 추세임
 - 가입자는 2006년 10만명에서 2008년말 33만명, 2012년에는 160만명으로 추정
- PC는 쿠바 정부의 민간판매 품목이었으나 2008년 민간판매가 허용돼 쿠바의 최대 유통공기업 CIMEX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
- 미국의 엠바고 조치 때문에 쿠바-미국 플로리다간 해저 광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여 위성 인터넷을 사용중임
 - * 비용 및 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쿠바 동부와 베네수엘라 북부를 연결하는 1,552km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 협정이 2007년 1월 양국간 체결됨

□ 농업

- 여타 농업 분야 중 국내 소비용 과일 및 야채는 1994년 자유 농산물 시장 (Mercado Agrop Ecuario)로 도입된 후 생산이 크게 증가
 - 쌀, 콩, 밀 등 일부 주요 작물의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쌀은 중국, 베트남, 밀은 프랑스, 감자는 캐나다 및 네덜란드에서 수입함
- 미국이 농산물 및 의약품에 대한 對쿠바 금수조치를 2000년 완화한 이후 미국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미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 농산물은 대두 분말, 닭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등임

□ 건설플랜트분야

- 쿠바는 마리엘특구 건설과 같은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마리엘 특구 1단계 개발은 브라질 개발은행(BNDES)의 차관으로 Odebrech가 완공하였으며 2022년 까지의 2단계 개발이 계획 중임

- 쿠바정부는 2008년부터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 아바나시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4억불이 소요, 쿠바 전체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는 16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교통시스템, 항만 시설 및 통신 분야는 중국의 자금 지원으로 개선 작업 진행 중(총 지원액은 15.6억 달러 수준)
- 쿠바 정부의 사회경제개혁안의 추진과 함께 향후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전자재 수요가 동반 성장 예상

□ 신규 에너지원 발굴 : 석유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 쿠바는 PetroCaribe 협의체에 의거 베네수엘라에서 저리에 공급받는 원유를 주 에너지 원으로 활용
 - 쿠바는 베네수엘라에서 일 평균 10만 배럴 가량 수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을 수출하는 일종의 바터 교역을 하고 있음
 - * 베네수엘라는 석유 1 배럴당 가격이 100불 이상일 경우, 총 유가의 50%를 25년간 외상으로 제공(배럴당 가격이 50-99불일 경우 40%, 25년 조건이며 40-49불: 30%, 25년, 40불 미만 17년간 외상 제공)
- PetroCaribe 협의체의 퍼주기식 원유 제공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어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 후 현정권에서 동 협의체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대두
- 쿠바는 이에 자체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심해유전 개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등을 추진
- 쿠바의 심해유전은 멕시코만에 위치하며 200억 배럴, 연근해 유전의 경우 400만 배럴 정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전체 유전을 52개 광구로 나누어 분양하고 있으며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분양받아 탐사작업 시행 중
 - * 멕시코, 미국은 쿠바의 멕시코만 심해유전 매장량이 40~70억 배럴일 것으로 추정

- 쿠바의 유전 개발은 7% 정도만 진행되었으며 쿠바 정부는 이를 17~20% 정도로 높이는 한편, 기존 유전의 효율화 작업, 정유설비 확충 등을 희망
- 석유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도 장려하고 있으며 마리엘 특구에는 석유산업 투자자들을 위한 구역도 별도 지정
- 쿠바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며 쿠바 정부는 한국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

□ 니켈 및 코발트

- 쿠바는 세계 6위의 니켈 생산국이며 쿠바 내 외국인 투자 중 대규모 투자는 니켈 채굴에 집중되어 있음
- 2008년 기준 니켈 확인 매장량은 560만 톤(세계 3위), 추정 매장량은 2,300만톤(세계 2위)이며 코발트 확인 매장량은 100만톤(세계 3위)임
- 쿠바는 '94. 12월 신광산법을 제정하여, 광산업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광간과 광물자원의 소유는 국가가 보유하며, 광물탐사권의 시효는 3년 이고 기간 만료시 2년간 갱신 가능함
- 광물채취권이나 제련 등을 통한 생산권은 20년간 유효하며, 상황에 따라 20년간 연장 가능함
- * 채광활동은 기초산업부 산하 광물자원국이 감시하고 있음

□ 관광산업

- 쿠바는 연중 온화한 기후, 해변, 식민지 건축물, 쿠바의 독특한 문화 등으로 연간 3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관광산업에서 발생하는 외화수익은 쿠바 정부의 주 외화소득원으로 쿠바의 경제개혁 및 각종 정책은 관광산업을 장려하고 있음

- 쿠바는 바라데로(Varadero), 산타 루시아(Santa Lucia), 과르다라바카(Gudadalavaca), 까요 산타 마리아(Cayo Santa Maria) 등 8개의 해변휴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많은 해변을 자랑함
- 아바나 구도심과 성벽, 비냐레스(Viñales) 계곡, 씨엔푸에고스(Cienfuegos), 까마웨이(Camagüey) 역사지구, 그란마(Granma) 등 9개 지역은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 식민도시, 해변 휴양지 등의 전통적인 관광이 쿠바 관광산업의 핵심이나 최근 들어 의료관광, 생태관광 등도 각광받고 있음
 - 특히 의료관광의 경우, “ServiMed”라고 하는 전문 기업을 설립하여 건강 검진, 재활훈련,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학과, 피부과와 관련된 진료를 제공하며 노인전문센터도 운영
 - 최근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쿠바를 방문하는 브라질, 중국, 베네수엘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축구선수 마라도나, 차베스 대통령(베네수엘라), 코레아 대통령(에콰도르) 등 유명 인사들도 쿠바에서 치료를 받음
- 쿠바는 앞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희망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여행지를 섭렵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관광지를 찾고 있어 이들을 겨냥한 현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건설이 필요
- * 한국인 쿠바 관광객은 아직 연간 5천명 수준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2015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5-001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1편 -	2015.1
15-002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2편 -	2015.1
15-003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 전략	2015.1
15-004	주요국 온라인 해외 직구시장 동향	2015.1
15-005	2015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5.1
15-006	RCE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2015.1
15-007	아베노믹스 2년 성과 진단 및 향후 전망	2015.1
15-008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15.1
15-009	TPP 협상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5.2
15-010	주요국 정상신년사로 바라본 2015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2015.1
15-012	엔저 장기화에 따른 일본기업 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5.3
15-013	'재부상 하는 인도' - 2015~2016 회계연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 및 우리기업 진출 기회 분석	2015.3
15-014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현지반응과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	2015.3
15-015	201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5년 전망	2015.3
15-016	2015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5.3
15-017	미국 금리인상 전망과 수출 기상도	2015.4
15-018	일본 식품시장 트렌드 및 진출 가이드	2015.4
15-019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2015.4
15-020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시장동향 분석 및 시사점	2015.4
15-021	TPP 협상이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5.5
15-022	유럽 실버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1)	2015.5
15-023	유럽 실버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2)	2015.5
15-024	EU 에너지연합 기본전략계획안 내용 및 시사점	2015.5
15-025	2015 영국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2015.5
15-026	TPP 이후 한·일 對美 수출 전망	2015.6
15-027	세계시장의 히트 환경상품	2015.6
15-028	한-중미 FTA와 우리기업 진출기회	2015.6

15-029	2015년 3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5.7
15-030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책	2015.7
15-031	시장 점유율 분석을 통한 한국 수출 시장 재조명	2015.8
15-032	주요국 천연화장품 시장동향	2015.8
15-033	경제제재 1년, 러시아 시장 새롭게 접근하자	2015.8
15-034	2015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2015.8
15-035	韓日 제3국 상생협력 진출전략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2015.8
15-036	동유럽 의료기기 시장 동향과 진출방안	2015.8
15-037	인도 에너지산업 점검과 우리기업 진출 기회 : '한-인도 에너지산업 손잡다'	2015.8
15-038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2015.10
15-039	2015년 4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5.10
15-040	해외 바이어가 들려주는 100대 수요급등 품목	2015.10
15-041	키워드로 살펴보는 미국 소비시장 트렌트	2015.10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5-001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종합 안내서	2015.1
15-002	부진속에 빛난 대중국 수출품 : 14년 가공단계별·품목별 수출성과	2015.2
15-003	주요국의 중국 농식품시장 진출 사례	2015.5
15-004	한중 FTA 업종별 기대효과와 활용방향	2015.7
15-005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한·중 FTA 비즈니스 활용정보	2015.9
15-006	중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400인 증보판	2015.9
15-007	육성에서 혁신으로 :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시사점	2015.10

□ GSR (Global Strategy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5-001	韓中美日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연구	2015.9
15-002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인도 제조업 협력 확대방안	2015.9
15-003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확장과 한국의 투자·통상 대응 전략	2015.9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5-001	2015년 이후 유럽 각 국의 주요 제도 변화	2015.1
15-002	KOTRA Global Insight (2015년 권역별 진출전략)	2015.1
15-004	2014 KOTRA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2015.1
15-005	2015 권역별 시장진출전략	2015.1
15-006	크로아티아 투자실무가이드	2015.1
15-007	GVC발전단계 모델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별 외국인투자 입지 현황과 정책방향	2015.2
15-008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미국 (디트로이트 KAPP)	2015.2
15-009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독일 (프랑크푸르트 KAPP)	2015.2
15-010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일본 (나고야 KAPP)	2015.2
15-011	몽골 투자 가이드 2015	2015.2
15-012	코트라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수출성공사례)	2015.2
15-013	권역별 한류 활용 마케팅	2015.3
15-016	2014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5.4
15-017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4	2015.4
15-018	SEOUL FOOD 2015 디렉토리	2015.5
15-019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5.6
15-020	외국인투자가이드	2015.6
15-021	2014 KOTR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5.6
15-022	2014 KOTRA Integrated Sustainability Report	2015.6
15-023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2015.7
15-024	2015 대양주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 가이드	2015.7
15-025	SEOUL FOOD 2015 결과보고서	2015.7
15-026	문 -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 성공 사례집	2015.7
15-027	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September 2015 Edition)	2015.9
15-028	M&A형 투자유치 현황과 대응전략	2015.8
15-029	지식산권보호연계수책	2015.8
15-030	Doing Business in Korea	2015.9
15-031	Guide to Establishing a Business in Korea	2015.9
15-032	계약산업 브라질 진출 전략 보고서	2015.9
15-033	외국인 투자상담 Q&A	2015.9

15-034	韓國投資ガイド	2015.9
15-035	Invest KOREA 2014년도 연차보고서	2015.9
15-036	중남미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	2015.9
15-037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전략 추진방안 연구	2015.9
15-03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요약번역본	2015.9
15-03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영문법률 포함)	2015.10
15-040	Q&A on FDI in Korea	2015.10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5-001	2015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5.1
15-002	2015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5.1
15-003	2015 주요 전략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5.1
15-004	2015 달라지는 FTA환경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2015.1
15-005	코트라 해외수주협의회 제 18차 수요포럼	2015.1
15-006	한류스타-중소기업 융합 해외마케팅 사업설명회	2015.1
15-007	강원도-외투기업 우량기업 투자마케팅 협력상담회	2015.3
15-008	한류스타-중소기업 융합 해외마케팅 설명회	2015.3
15-009	코트라 해외수주협의회 제 19차 수요포럼	2015.4
15-010	한중 FTA 활용방안 설명회	2015.4
15-011	2015 세계 주요시장 수출전략 설명회(지사화 전담직원 방한교육 연계)	2015.5
15-012	3中(중동, 중남미, 중국), 3戰(이란, 멕시코, 중국내륙) 시장 설명회	2015.5
15-013	Global Online Biz-Week Korea 2015 Business Forum	2015.5
15-014	인도 자동차부품 시장 진출 기회	2015.6
15-015	Global Project Plaza 2015	2015.6
15-016	글로벌 가치사슬과 FTA 활용전략 설명회	2015.7
15-017	해외진출氣UP 지원 설명회	2015.8
15-018	에콰도르 투자 설명회	2015.8
15-019	2015 Global Bio Medical Forum - Overseas Hospital Project Presentation	2015.9
15-020	동유럽 의료기기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5.9
15-021	2015년도 하반기 세계 주요시장 수출전략 설명회	2015.9

15-022	주력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5.9
15-023	MDB·글로벌개발펀드 프로젝트 플라자	2015.9
15-024	쿠바 마리엘 경제특구 투자 설명회	2015.9
15-025	미래 신성장동력, 해외 프로젝트 시장 진단과 전망 :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창립 5주년 기념 특별포럼	2015.9
15-026	한중FTA 활용 Gateway To China 설명회	2015.10
15-027	對韓투자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첩경	2015.10
15-028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Forum	2015.10
15-029	제12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The 12th Korean FDI Forum)	2015.10
15-030	Open Innovation Opportunities with Korea	2015.10



작성자

◆ 구미팀

백승원 사원



Global Market Report 15-042

Blue Ocean 쿠바 시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발 행 인 | 김 재 흥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10월 13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